

풍수 윤리관의 역학적 지반에 관한 고찰

박일용

공주대학교 동양학과 박사과정 수료, 동양학 전공

56ill563355@hanmail.net

- I. 머리말
 - II. 풍수의 윤리관
 - III. 『주역』의 윤리관
 - IV. 풍수 윤리관의 역학적 해석
 - V. 맺음말
-

I. 머리말

본 논문은 풍수의 근본이 되고 있는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이 『주역』에 있음을 밝히고, 『주역』의 인간관과 윤리도덕관에 대한 역학적 해석을 토대로 풍수 윤리관을 새롭게 정초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이는 풍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관건이 될 것이며 또한 풍수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본다.

동양 사상의 대부분이 실제적 경향을 띠다고 할 때 풍수 또한 그렇다. 형이상학에서 실재(reality)를 탐구하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아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답하기 위해서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당위의 규범법칙과 가치의 영역을 포함한다.¹ 풍수는 실재에 대한 선형성과 경험성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학술체계이다. 풍수 이론체계에서 실재에 대한 선형성의 한 축은 동기감응론이, 또 다른 한 축은 윤리관이 담당하고 있다. 태극(太極) 혹은 도(道)의 가치론적 측면에서 비롯된 풍수의 윤리관도 사실은 형이상학에서 실재를 탐구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풍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동기감응의 결과에 온통 집중되어 있으며, 그만큼 이것은 풍수의 근본을 보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사람들은 동기감응의 결과 이외에 따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자 풍수의 궁극적 목표, 즉 ‘윤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동기감응의 좋은 결과만을 풍수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수가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반증이기도 하다.

1 이홍우, 『성리학의 교육이론』(교육과학사, 2014), iv 쪽.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겠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 음덕으로 복을 받아보겠다고 최고라고 알려진 풍수사를 초청하여 명당길지(明堂吉地)를 찾는다. 이런 일이 풍수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천도(天道)와 인륜(人倫)에 부합하고자 하는 정통 풍수의 입장에서 볼 때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아닐 수 없다.² 풍수가 그 효과를 발휘하는 장면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효과를 초래하는 사람의 마음 혹은 윤리 도덕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풍수의 폐해를 탓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폐해를 초래하는 사람의 마음 내지 '윤리 도덕'인 것이다.

그래서 풍수학계에서는 풍수의 철저한 윤리성을 강조하는 풍수 윤리관의 중요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연구 결과물이 부족하고 미진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 연구 결과물³은 풍수 윤리관을 단일 논제로 다루지 않았고 대부분 풍수 윤리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실 풍수 윤리관의 본질과 철학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리고 동양학인 풍수 윤리관을 동양철학 혹은 동양 윤리학적 접근이 아닌 현대 윤리학적 의미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의 성과라면 풍수 윤리관의 본질과 철학적 기반을 '역학적 사유'로 해석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풍수 윤리관이 풍수 이론체계의 근본임을 밝히고,

2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민음사, 2006), 16쪽 참조.

3 최창조가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에서 '소주길홍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풍수 윤리관을 체계화한 이후로 이와 관련하여 발표된 국내 논문으로는 홍보남의 「한국 풍수설화에 나타난 풍수이론 특징」, 김홍곤의 「대학 캠퍼스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분석」, 박광서의 「유성룡의 선대 음·양택에 관한 풍수지리적 연구」, 박정혜의 「풍수 발복론의 역사적 전개와 한계성 비판」, 김혜정의 「중국 풍수지리학의 사상적 연원」 등이 있다.

풍수 윤리관의 본질을 고찰하여 풍수 윤리관이 철학적 토대가 역학에 있다는 점을 천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풍수 윤리관은 풍수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풍수 고전에 나타난 윤리관을 탐구하고 풍수 윤리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풍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구축의 필요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하여 기존의 풍수 윤리관에 대한 인식과 해석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풍수 윤리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 실천상의 가치 개념인 선(善)과 덕(德)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끝으로 풍수 윤리관의 본원과 실체, 즉 철학적 기반을 탐색하기 위해 태극(太極)과 도(道), 건곤(乾坤)과 성명(性命) 등의 역학(易學) 개념을 토대로 『주역』이 천명(闡明)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 윤리 도덕의 원리를 고찰하려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역』의 윤리관과 풍수 윤리관의 본질적 동일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풍수 윤리관에 대한 형이상학적 밑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II. 풍수의 윤리관

1. 풍수 고전의 윤리관

풍수의 윤리관에 대해서 논술하고 있는 중국 풍수 고전, 즉 『설심부(雪心賦)』, 『명산론(明山論)』, 『발미론(發微論)』, 『지리신법(地理新法)』, 『인자수지(人子須知)』 등의 윤리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윤리관은 각 서적의 시작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윤리관이 서론 부분에 또는 결론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윤리관이

풍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상이 얼마나 의미가 크고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응천(卜應天)이 지은 『설심부(雪心賦)』에서는 풍수의 윤리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적선(積善)은 필히 길지에 장사(葬事)하고, 적악(積惡)은 도리어 흉지를 잡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만 이롭게 하지 말고 살상(殺喪)을 좋아하여 하늘을 속이지 말라. 혈(穴)은 본래 하늘이 만드는 것이고, 복(福)은 마음에 연유하여 지어지는 것이다.”⁴

채성우(蔡成寓)가 지은 『명산론(明山論)』에서는 “남모르는 선행을 쌓지 않았던 집안[不積陰德之家]은 좋은 땅에 장사 지내서는 안 된다.”⁵고 하며 남모르는 선행(善行), 즉 적덕(積德)을 강조했다.

채원정(蔡元定)이 지은 『발미론(發微論)』의 「감응편(感應篇)」에서는 “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덕함으로써 그 근본을 이루어야 한다. 만약 그 덕을 두터이 이루면 하늘은 반드시 길지로 응하니, 이런 까닭으로 복이 자손에 미친다. 악함을 가득 이루면, 하늘은 반드시 흉지로 응한다.”⁶고 하면서 적선, 적덕을 풍수 윤리의 핵심으로 정초하고 있다.

서선계(徐善繼)·서선술(徐善述) 형제가 지은 『인자수지(人子須知)』에서는 “음덕(陰德)을 닦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不可不修陰德]. 길지를 얻고자 하면 모름지기 심지(心地)가 좋아야 하는 것이니 세력(勢力)으로써 풍수를 경영하는 일은 불가하다. 덕을 쌓지 아니하고 땅을 구하는 것은 비유컨대, 갈아 뿌리지 아니하고 수확을 하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통할

4 복응천 저, 신평 譯註, 『고전 풍수학 설심부』(관음출판사, 1997), 451쪽. “積善必獲吉遷 積惡還招凶地. 莫損人而利己 物喪善以欺天 穴本天成 福由心造.”

5 채성우 원저, 김두규 역해, 『명산론』(비봉출판사, 2010), 222쪽.

6 채원정 著, 양금국 點校, 류보동 主編, 『圖注 發微論』(내몽고인민출판사, 2010), 77쪽. “求地者 必以積德爲本. 若其德果厚, 天必以吉地應之. 是所以福其子孫者必也. 其惡果盈 天必以凶地應之.”

것인가? 구지(求地)의 근본이 덕에 있다면 수덕(修德)할 따름이다. 수덕하여서 하늘을 기다리고, 택지(擇地)하여서 인도(人道)를 병행한다면, 불패(不悞)되니 인인효자(仁人孝子)의 마음가짐일 것이다.”⁷라고 논하면서 풍수 윤리가 인륜, 인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호순신(胡舜申)이 지은 『지리신법(地理新法)』에서는 “스스로를 닦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다한다는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게 되면 하늘의 이치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귀는 저절로 이르게 된다.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지 않으면 끝내는 빈천해질 뿐인데, 이 역시 자신에게 정해진 분수이다. 그래서 길함과 흉함은 모두 그 사람의 덕에 맞게 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길하게도 되고 흉하게도 되는 바 근거를 지리(地理)에서 구할 수 없는 이유이다. 산수(山水), 즉 지리의 길흉은 단지 그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덕과 서로 부합할 뿐이다. 그러므로 대저 산수의 법과 음양의 유무(有無)이론은 비록 믿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얽매어서는 안 된다.”⁸고 하면서 다른 풍수 고전과 달리 적선, 적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풍수이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고 하면서 덕을 강조함으로써 풍수 윤리관의 성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풍수 고전 이외에도 장자미(張子微)가 『옥수진경(玉髓眞經)』에서는 “제왕(帝王)의 흥(興)은 덕에 있지 역(力)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지키는 도에 있는 것이지 지(地)에 있는 것은 아니다.”⁹라고 지적한

7 김동규 역저, 『인자수지』(前)(명문당, 2008), 91-94쪽.

8 胡舜申 著, 金科圭 譯, 『地理新法』(비봉출판사, 2005), 302-303쪽. “自修 則人事盡 人事盡 則天理得 富貴將自至 否則終於貧賤已 亦其分也. 故曰 吉凶之來 皆象其德. 此所以爲吉凶 不可求於山水之間也. 山水之吉凶 特 每與是相符合爾. 故 大抵山水之法 陰陽有無之說 雖可信而不可泥也.”

9 최창조(2006), 앞의 책, 31쪽 참조.

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이 풍수의 근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많은 지적들을 보면 명당을 얻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적선과 적덕이 거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와 같은 윤리관은 『주역』의 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과도 연결된다. 즉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음이 있고, 불선(不善)을 많이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음이 있다.”¹⁰라는 것이다. 결국은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리신법』에서 풍수이론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라고 하면서 '덕'을 강조한 것이나, 『인자수지』에서 풍수 윤리가 '인도(人道)'임을 천명한 것도 풍수 윤리관의 본질과 의의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2. 전통풍수 윤리관의 비판과 한계

오늘날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풍수계에서도 윤리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적선과 적덕을 행한 사람만이 명당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명당이 발복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 풍수 윤리관의 전모(全貌)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풍수 윤리관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는, 인간이 본유(本有)하고 있는 도덕적 인격을 실천하는 것이다.

풍수 윤리관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해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이는 풍수 윤리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풍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구축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 풍수 윤리의 본질과 의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풍수

10 坤卦 「文言傳」.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윤리관에 대한 현실은 풍수설화¹¹와 풍수 윤리관¹²의 차별성을 정확히 분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풍수설화의 윤리적 내용을 풍수 윤리관과 동일시하고, 풍수 이론체계에서 윤리관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심도 있게 논의된 적도 없다. 심지어 윤리관이 풍수 이론체계에서 독립된 분야로 인정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2) 풍수 윤리를 단지 불교와 유교 윤리의 영향의 일면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풍수설화에서 나타난 유교 문화적 윤리 내용과 불교 문화적 윤리 내용을 풍수 윤리와 혼동하거나 동일시하고, 풍수 윤리가 그들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불교와 유교는 그 당시 국가의 기본 지도이념이거나 사회의 정통 윤리였을 뿐이다. 이런 경향의 주된 이유는 풍수를 소비하는 민중 사회에서 풍수 윤리와 불교와

-
- 11 풍수설화는 명당발복관을 기본 심상으로 하여 풍수 원리 또는 관행에서의 체험적 영상들이 '설화적 인식'이라는 틀을 거쳐서 다양한 이야기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풍수 원리, 풍수 관행과 관련된 제 요소들이 전승층의 의식 속에서 새롭게 걸러지고 굴절되어서 풍수 원리 또는 관행의 실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어 다양한 설화적인 인식내용을 표출하는 것이다. 林甲娘, 「음택풍수설화연구」, 『한국학논집』 제13집(1986), 154쪽. 즉 풍수 설화와 풍수 이론체계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풍수설화는 음택풍수설화를 의미한다.
- 12 풍수의 윤리관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최창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풍수의 학술적인 이론체계의 정립을 시도했는데, 여기에서 '所主吉凶論'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풍수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이론체계에서 독립된 분야로 정립된다. '소주길흉론' 용어의 출전은 명나라 초기에 서선계·서선술 형제가 쓴 『人子須知 資孝地理學』이란 책의 내용 중 '二十四龍所主吉凶'이란 표현에서 나온 것이다. 최창조,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민음사, 2014), 45쪽. '소주길흉론'이란 평소에 善行을 하거나 德을 쌓은 사람만이 명당을 얻을 수 있고 땅에는 각기 정해진 임자가 있기 때문에 임자가 아니면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땅의 格과 사람의 人格이 서로 맞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또한 본 연구자는 풍수의 윤리관을 '소주길흉론'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윤리관'이라고 직설적으로 이름하는 것이 풍수의 윤리관을 더욱 선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 논문에서는 '소주길흉론'이라는 용어 대신에 풍수 윤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유교의 사상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지고, 모순 없이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풍수의 이론체계와 불교·유교와는 전혀 무관하다.

풍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풍수가 『주역』 철학을 수용하면서 그 이론체계를 정립했기 때문에 풍수 이론체계의 철학적인 부분, 즉 동기감응론, 형국론, 윤리관 등의 기반은 자연스럽게 『주역』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풍수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은 『주역』일 수밖에 없고, 불교, 유교와는 다른 풍수의 고유한 윤리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풍수 윤리와 풍수 원리¹³들 간의 관계에 대한 혼란스러움이다. 명당을 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명당이 발복하기 위해서는 적선과 적덕만이 필요하다면 풍수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풍수 무용론(無用論)으로까지 논리의 전개가 가능할 수 있다. 명당을 얻는 것, 즉 풍수의 효율성은 윤리 도덕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풍수 원리의 권위, 객관성, 효율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움은 풍수 윤리가 풍수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라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풍수 고전에 의하면 명당은 어느 누가 차지하던 명당으로서 기능을 다할뿐, 착한 사람이어야만 제대로 발복한다는 이론은 없다. 특히 악한 사람이 명당을 차지했을 때 큰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풍수 고전의 이론에 나오지 않는다.¹⁴ 사실 윤리관을 논의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풍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즉 명당을 얻고 발복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이 풍수 윤리관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명당을 얻어서 발복하는 것과 적선과

13 풍수 이론체계는 철학적 부분인 동기감응론, 윤리관, 형국론과 경험과학적인 부분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풍수 원리는 경험 과학적 부분을 말한다.

14 윤홍기, 『땅의 마음』(사이언스북스, 2011), 228쪽.

적덕을 ‘필연적인 인과관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풍수 윤리관의 본질은 도덕적 자각을 통한 도덕적 인격의 실천이며, 또한 풍수의 윤리관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윤리적 교화를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풍수의 지향점인 인간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풍수 윤리관은 목적 지향적 측면이 매우 강한 것이다. 예컨대, 풍수 윤리관에서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명당을 얻어 복을 얻는 경우가 있다면 조상의 공덕으로 여기고, 반대로 착한 일을 하였는데도 복을 얻지 못한다면 조상의 공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조상의 돌아가신 체백(體魄)을 생기(生氣)가 넘치는 곳에 모신다는 의미는 생명력을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효(孝)’의 이념이 스며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조상숭배 혹은 효의 실천 방법이 풍수 윤리와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이처럼 선을 쌓고 덕을 쌓는 일이 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윤리관이며, 이와 같은 생생(生生)의 덕(德)은 『주역』에서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풍수 이론체계에서 풍수 윤리관은 다른 풍수 원리 등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4) 풍수의 윤리관은 풍수 고전에서 시작 부분이나 마무리 부분에서 논의되고, 그 분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풍수에서 지엽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윤리관은 인간의 천부적인 본성대로 삶을 영위하고, 더 나아가 도덕적 실천의 책임을 자각하여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도덕적 삶을 권장하는, 즉 윤리적 교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풍수의 출발점이자 본령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윤리관의 함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관의 내용이 책의 서론이나 결론 부분에 논술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리관이 풍수 고전의 본문에서 논의되지 않는 이유는 풍수 이론체계가 철학적인 부분¹⁵과 실용적인 경험과학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학적

부분이 경험과학적 부분의 대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풍수의 윤리적 목표와 풍수 이론 자체(경험과학적 이론체계)와 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며 혹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풍수는 응용역학, 실용학문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부분의 풍수서에는 철학적인 부분보다 경험과학적인 이론체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윤리관의 내용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관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할 뿐이지 윤리관이 결코 지엽적인 것은 아니다. 풍수 이론체계에서 풍수의 윤리관은 본령이며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풍수의 윤리관을 세속적인 풍수사들이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 세속적인 풍수사들은 수많은 금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풍수의 윤리관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실수를 변명하곤 한다. 본래 풍수란 인간과 땅(혹은 자연)의 올바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세속적인 풍수사들은 발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발복·명당·풍수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세속적인 풍수사들의 이와 같은 행태는 그들의 현실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속적인 풍수사들은 현장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최종적으로 망자(亡者)의 선행이나 적덕을 논하면서 자신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속적 풍수사들의 행태가 풍수 윤리관의 본질과 목표를 호도하고 흐려놓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행태는 결과적으로 풍수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풍수의 사회적 병폐와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15 풍수 이론체계의 철학적 부분을 기감응적 인식체계라고도 하며 동기감응론, 윤리관, 형국론을 말한다. 경험과학적 이론체계는 풍수의 제원리라고도 하며 간룡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론을 말한다.

6) 풍수의 근본과 지엽을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풍수 이론체계는 크게 근본과 지엽 내지는 차원이 다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양자 사이에는 엄연한 구분이 있다. 그런데 지엽적인 것을 근본으로 착각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윤리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의 경험과학적 이론체계와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풍수의 윤리관이 본말 전도되어 경험과학적 이론체계가 풍수의 근본, 즉 윤리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풍수에서 이와 같은 본말전도는 결국 재앙이 따른다. 또한 풍수 폐해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7) 윤리관을 풍수이론의 대전제 혹은 근본으로, 또는 풍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풍수 윤리관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실은 윤리관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부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학계에서 소외되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풍수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폐해를 유발시켜 풍수가 사회적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8) 풍수 윤리관에서 풍수이론의 한계성, 인간의 불완전성을 엿볼 수 있다. 풍수이론¹⁶ 또는 원칙에 추호의 오차도 없는 교과서적인 모양을 갖춘 땅인데도 생기(生氣)가 없는 허화(虛花)라는 것도 있다. 예컨대 허화라는 것은 풍수이론의 한계성과 인간의 불안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인간의 윤리 도덕이다. 다시 말해서 땅의 용맥(龍脈)이 어떤 기(氣)를 지니고 있느냐를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심 없는 인간적 본능과 인륜에 어긋남이 없는 성심을 지니고 땅을 대하는

16 여기서 풍수이론은 경험과학적 이론체계를 말한다.

것이다.¹⁷ 또한 풍수의 이론에 능하고 수많은 현장경험을 가진 최고의 풍수사도 명당길지를 구하는데 실수가 많다. 이와 같은 사실은, 풍수는 인간의 욕심을 허용하지 않고, 또한 인간의 거짓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국은 인간의 불완전성과 풍수이론의 한계를 노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풍수 윤리관은 이와 같은 풍수이론의 한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한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는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9) 풍수의 이론체계는 철학적인 부분과 경험과학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풍수는 실재(reality)에 대한 선형성과 경험성이 상호 의존하는 이론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풍수는 ‘과학적 철학’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철학적 부분에 해당하는 풍수 윤리관은 자연스럽게 실증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21세기 현대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풍수이론의 한계성을 노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풍수 이론체계에서 철학적 부분은 풍수의 출발점이고 목표이며, 경험과학적 부분의 대전제이고 토대가 되고 있지만, 철학적 부분과 과학적 부분이 정합적으로 상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적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철학적 부분에 해당하는 윤리관을 풍수의 이론체계의 목적 혹은 목적 지향적 풍수이론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풍수 윤리관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과학에 대한 통상적 인식은 과학은 영원불변의 진리가 아닌 하나의 패러다임(paradigm)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과학에 대한 맹신은 또 다른 학문과 지식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7 최창조(2006), 앞의 책, 23쪽.

3. 풍수 윤리관의 본질

풍수 고전에 나타난 윤리관은 최종적으로 적덕과 적선으로 집약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풍수 윤리관의 본질이 도덕 실천상의 가치 개념인 선과 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수 윤리관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덕과 선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덕(德)

‘만물은 도(道)에 의해서 생성되고 변화유행(變化流行) 하는데, 이 도에서 얻는 것이 바로 덕(德)이다.’라는 것이 덕에 대한 『주역』의 입장이다. 건괘(乾卦) 「단전(象傳)」 “천덕불가위수야(天德不可爲首也)”에서 천덕(天德)은 바로 천도(天道)이고, 건괘 「문언전」 “군자진덕수업(君子進德修業)”에서 덕(德)은 도(道)를 말하고 있듯이 『주역』에서 도와 덕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역』에서 덕은 천지(天地)의 본성을 얻는 것이다.

도(道)는 전체와 일(一)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덕(德)은 나눔과 다(多)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철학적 단계로 말하면 당연히 도는 첫 번째 단계이고, 덕은 두 번째 단계이다.¹⁸ 도를 행하여 마음에 얻음이 있는 것이 바로 덕이다. 또한 덕은 인간의 본성이 후천적인 사욕(私慾)과 편벽된 기질(氣質)의 영향에 의하여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발휘될 때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다.

도(道)가 원만하게 변화유행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 인간다운 본질은 인간이 다시 도로 복귀하여야 할 때를 자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 자각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도덕 세계는 도(道)에서 발단하는 것이

18 고회민 저, 정병석 역, 『주역철학의 이해』(문예출판사, 2004), 377쪽.

며, 덕(德)은 도덕 인격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힘써 실천하여야 할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편 도가역(道家易)에서는 도덕 가치 개념인 ‘덕(德)’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생하게 하고 기른다. 생하게 하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행함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성장시키면서도 주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신비로운 덕 즉 현덕(玄德)이라고 한다.¹⁹

도는 낳고 덕은 기르고 물은 형태를 가지고 형세는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와 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가 명령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낳고, 덕은 기르고, 자라게 하며, 키우고, 안정시키고, 양성하고, 보호한다. 낳고서도 소유하지 않으며, 행함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기르면서도 주재하지 않는 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²⁰

윗글에서 덕은 ‘생(生)하게 하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길러주면서도 주재하지 않는’ 정신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덕은 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도와 덕은 누가 명령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 『老子』, 제10장. “生之畜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20 『老子』, 제51장. “道生之, 德畜之, 物形之, 勢成之, 是以萬物莫不尊道而貴德,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而常自然, 故道生之, 德畜之, 長之育之, 亨之毒之, 養之覆之, 生而不有, 爲而不恃, 長而不宰, 是謂玄德.”

2) 선(善)

선이란 인간의 본성에서 바르게 발휘된 본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²¹으로 『설문해자』에서는 선(善)으로 쓴다. 『설문해자』에는 “선(善)은 길(吉)하다는 뜻이다. 경(諍)과 양(羊)을 구성요소로 하며, 의(義)·미(美)와 같은 뜻이다.”²²라고 한다. 두 언(諍)은 두 사람이 각자의 주장의 정당성을 신(神) 앞에서 서약하고서 논쟁한다는 의미를, 양(羊)은 서로 논쟁하는 두 사람의 사이에 서서 각 주장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귀신을 대신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상징한다.²³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선은 양의 심판이 사악한 자를 항상 배척하고 정직한 자를 옹호하여 길복을 준다고 하는 원초적 의미의 종교적 성격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의 존재 근거 내지 정당성의 근거가 초월적 존재인 신(神)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침이 없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행위를 의미하는 선의 개념은 ‘정(正)’의 의미와도 상통하는데 『대학(大學)』에서는 ‘정(正)’을 ‘지어지선(止於至善)’이라고 말하고 있다. 『설문해자』에서는 정자(正字)는 일(一)과 지(止)가 합쳐진 것으로 금지된 한계선[—] 앞에서 멈춘 발의 형상[止]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원시사회에 있어서의 타부의식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으며 ‘한계선[—]’이 추상화 될 때 행위의 규범 내지 그 근거로서의 ‘선(善)’이라는 가치론적 의미로 정립된다.²⁴

선은 사실의 영역이 아닌 가치의 영역으로 인성론(人性論)과 밀접한 연관

21 『孟子』, 「盡心下」14장. “可欲之謂善.”

22 “善吉也, 從諍從羊, 此與義美同意.”

23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박영사, 1990), 682쪽.

24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주역』의 음양대대적 구조와 중정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89a), 94쪽.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치 개념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선의 성립근거에 대하여 맹자는 인의(仁義)가 인심(人心)에 내재해 있음을 주장하여 ‘즉심견성(卽心見性)’하는 도덕적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 『역전(易傳)』²⁵은 천명(天命)·천도(天道)의 하관(下貫)으로 성(性)을 논하는 ‘우주론적 접근’을 하고 있으므로 그 전개 방향이 다르다.²⁶ 『역전』은 도덕의 원천으로서의 성(性)의 근거를 천도(天道)에 정초함으로써 성(性)의 절대 가치성을 확보한다.

선에 대하여 『계사전』에서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 이것을 일러 ‘도(道)’라 한다. 이 도를 계승하는 것이 ‘선(善)’이요, 이 도를 이루어 주는 것이 ‘성(性)’이다.”²⁷ 즉 ‘일음일양(一陰一陽)’의 원리를 본받아 따라 행하는 것이 도덕상의 ‘선(善)’이다. 또한 선의 성립은 도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는 『설문해자』에서 선의 정당성의 근거가 초월적 존재인 신(神)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과 통한다. 『역전』에서 말하는 선 개념은 결코 ‘객체성’으로부터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선 자체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모든 가치의 근원인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가치인 선은 동양 윤리학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윤리학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 윤리관의 본질은 선과 덕이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과 덕은 모두 도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덕 가치 개념인 선과 덕이 『주역』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풍수 윤리관의 본질은 인간이 본능적 욕구에서 자유로

25 『역전』은 道家의 형이상학과 陰陽家의 자연철학을 포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十翼이라고도 한다. 십익에는 『象傳』上下, 『象傳』上下, 『繫辭傳』上下, 『文言傳』, 『說卦傳』, 『序卦傳』, 『雜卦傳』이 있으며 저자와 제작연대에 관하여는 이설이 많다.

26 최영진, 「『繫辭傳』에 있어서의 선의 성립근거: ‘繼之者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1989b), 23쪽. 본 논문에서는 선의 성립근거에 대해 『역전』의 우주론적 접근의 입장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27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도덕적 자각을 통한 도덕적 인격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과 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선과 덕의 철학적 기반은 '도(道)'이고, 따라서 풍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은 『주역』의 '도(道)'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또한 이는 풍수 윤리관이 역학적 기반을 갖고 있음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풍수 고전에 나타난 풍수 윤리관의 다양한 내용들은 철학적으로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풍수와 역학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풍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이 역학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도에 근거한 풍수 윤리관을 『주역』에서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Ⅲ장 『주역』의 윤리관에서 논술할 것이다.

Ⅲ. 『주역』의 윤리관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풍수 윤리관의 본질과 『주역』 윤리관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먼저 태극(太極), 도(道), 건(乾), 도(坤), 성명(性命) 등의 역학적(易學的) 개념과 범주를 토대로 역학적 사유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과 윤리도덕의 근거와 원리, 즉 『주역』의 윤리관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극, 도, 건, 곤, 성명 등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본질 혹은 본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논의를 기반으로 우리는 앞서 고찰한 풍수 윤리관과 『주역』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1. 태극(太極)과 도(道)

태극 개념은 모든 존재의 우주론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명(性命)의 구조와 본체를 해석하는 단서가 된다. 태극은 존재로 말하는 경우 우주만물의 '유(有)'와 유(有)와 구별되는 '무(無)'는 모두 태극이며, 우주만물을 화생(化生)하는 생성 혹은 능생(能生)의 지위에 있어서는 제일 근원 혹은 본원이다.²⁸ 그리고 태극은 큰 유행(流行)작용을 말하며, 변동(變動)과 생생(生生)이 그것이 본성이며, 음양(陰陽)의 흐름이나 유행²⁹의 과정으로 드러난다.³⁰ 또한 태극은 우주만물의 본원이며, 우주만물과 태극은 하나이다.

「계사전」의 '태극생양의(太極生兩儀)'의 관점에서 태극은 변화운행의 작용이고 양의, 즉 음양은 변화운행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음양은 태극의 변화로서 태극 자체의 성질의 차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전(流轉)작용의 이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음양은 유행 중의 작용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극은 형이상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음양 현상계를 초월하여 있으나, 사물의 생성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음양의 계기(契機)를 함유한다. 태극을 주체로 하여 말한다면 태극이 음양 속에 내재하는 것이고, 음양을 주체로 하여 본다면 음양이 태극을 함유한다. 형이상적 관점에서 태극이 음양을 함유하며, 형이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음양이 태극을 함유한다. 즉 태극과 음양은 상함적(相涵的) 관계에 있는 것이다.³¹

28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117쪽.

29 태극은 運動性과 遍在性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變動·生生 하는데 이것이 바로 流行의 의미이다. 流行은 태극이 작용하는 모습의 하나로 형이상학적 작용이다. 태극의 본성은 만물 변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체적 현상계의 변화 속에 존재하며, 우주 만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유행 가운데에 있다. 태극의 자연유행과 만물의 변화생성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이며 구분은 없다. 그리고 태극이 유행한다는 의미는 그것이 작용상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본체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30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117-118쪽 참조.

역학에서 태극을 말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태극(太極)’과 ‘도(道)³²’의 관계이다. 도는 항상 존재하는 하나의 변화유행하는 작용으로서 우주를 이루고 만물을 낳고 하여 어디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³³ 이른바 역(易)의 도(道)는 변화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주 만물은 도의 변화하는 모습이다. 또한 도의 존재는 만물을 통하여 혹은 도의 작용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도는 시작도 끝도 없고 조금의 구속도 없는 무한한 것이다. 아울러 도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고, 하나이며, 자연스럽게 유행한다.

태극과 도의 관계는 “도의 지극함을 말하여 태극이라 하고, 태극의 유행을 말하여 도라 부른다. 사실상 태극과 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명칭의 사용에 있어 결코 엄밀한 구분이 없다.”³⁴ 태극은 철학체계의 근원이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생생변화의 근본이고, 도는 유행작용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생생변화의 법칙이다.³⁵ 『노자』에서 태극과 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혼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으니 천지(天地)보다 먼저 생겼다. 고요하

31 최영진(1989a), 앞의 논문, 63-64쪽 참조.

32 道가 언제부터 역학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하였는지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역학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말하면 殷代の 말기에서 周代の 초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34쪽. 「계사전」에서 “도라는 것은 자주 변하며, 변동하여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곳까지 두루 흘러간다. 상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강과 유가 서로 바뀌어 일정한 방식이 없고 오직 변화하는 것 그대로이다.”(「계사전」. “爲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無常, 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또한 “천지의 변화는 어느 것 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물을 이루는데 어떠한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계사전」. “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道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변화유행 작용으로서 우주를 이루고 만물을 낳는다.

33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35쪽.

34 『朱熹集』 卷 36, 「答陸子靜」. “故語道體之至極則謂太極, 語太極之流行則謂之道, 初無二體.”

35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41쪽.

고 공허하며 독립하여 있으면서도 변함이 없다. 어디에도 안 가는 곳이 없으나 위태롭지 않아서 천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도(道)’의 명칭이라는 것은 이름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름한 것이다.³⁶

인용된 구절에서 말하는 도는 사실상 태극이다. 태극은 모든 존재의 본원으로서 생성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개과정에서 항상 본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즉 태극은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³⁷ 또한 태극은 우주만물의 존재와 생성의 본원이며, 동시에 인간의 본질이며, 만물 속에 각각 동일한 본성으로 존속한다. 따라서 태극은 인성론적 차원에서는 인성(人性)의 극치이며,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는 윤리 도덕의 본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태극은 모든 존재의 존재론적 측면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가치론적 측면을 이해하는 단서도 제공하고 있다.

2. 건곤(乾坤)과 성명(性命)

건(乾)과 곤(坤)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는 구조적인 틀로서, 건과 곤의 관계 속에서 만사만물은 생성된다.

위태하도다. 건원이여! 만물이 이곳에서 시작하여 하늘을 거느리고 있다. 구름이 가고 비가 와서 모든 사물이 형태를 이루어간다. 큰 밝음의 시작과 끝은 여섯 자리의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간이 여섯 용을 타고 하늘을

36 『老子』 제25장. “有物混成，先天地生，寂兮寥兮，獨立不改，周行而殆，可以爲天下母。吾不知其名，字之曰道。”

37 김연재, 「한원진의 一原分殊의 역학방법론과 人物性異論의 논법: 太極圖의 해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5집(2013), 524쪽.

다스린다. 건도가 변화해서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한다. 조화를 보존하고 합하는 것이 바로 이정이다. 여러 가지의 사물 중에서 으뜸으로 나와서 모든 나라가 다 평안해진다.³⁸

지극하도다. 곤원이여! 만물이 모두 이곳에서 생긴다. 이에 하늘의 뜻을 순종하여 받든다. 곤은 두터워서 만물을 싣고 덕은 무궁한 것에 합하여 포함하는 것이 넓고 광대하여 만물이 모두 형통한다. 암말은 땅과 같은 종류로서 땅을 가는 것이 무궁하고 유순하고 이정하여 군자가 갈 곳이다. 먼저 앞서서 도를 잃어버렸으나 후에는 뒤따라 도를 얻는다. 서남쪽에서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곧 동류와 같이 감을 말한다. 동북쪽에서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마침내 경사가 있다는 말이다. 곤고 평안함의 길이란 것은 땅의 무궁함에 응한 까닭이다.³⁹

건곤⁴⁰은 만물의 창조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태극이 만물을 생화(生化)하는 것은 건도(乾道)의 변화로 성명(性命)을 낳고, 곤도의 변화로 형체(形體)를 더하여 만물이 비로소 나타난다. 건과 곤은 우주만물을 화생하게 하는 두 가지 작용으로 건도의 변화는 생명의 제1단계, 곤도의 변화는 생명의 제2단계인 것이다. 건과 곤은 태극상에서 말하면 선후가 없는 것으로 하나의 자연스런 유행변화일 뿐이다. 태극은 우주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포괄하

38 乾卦「象傳」. “大哉乾元，萬物資始，乃統天。雲行雨施，品物流形，大明終始，六位時成。時乘六龍以御天。乾道變化，各正性命。保合太和，乃利貞。首出庶物，萬國咸寧。”

39 坤卦「象傳」. “至哉坤元，萬物資生，乃順承天。坤厚載物，德合無疆，含弘光大，品物咸亨。牝馬地類，行地無疆，柔順利貞，君子攸行。先迷失道，後順得常。西南得朋，乃與類行，東北喪朋，乃終有慶。安貞吉，應地無疆。”

40 乾과 坤은 순수하고 정밀한 작용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天과 地는 건과 곤의 형이상학적 두 작용이 구체적으로, 즉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건도 변화는 품물, 시간, 공간을 창조하고 性命을 성취한다. 그리고 곤도 변화는 건도 변화를 계승하여 건도 변화를 통하여 창조된 성명을 함양하고 형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여 말하는 것으로 결코 객관적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 자연유행의 작용이다. 우주만물의 생성과정을 생성순서라는 논리적 입장에서 보면 건과 곤은 포괄적인 태극에 비교하여 제한적인 명칭이 되는 것이다.

태극은 품물,⁴¹ 시간, 공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혼연하여 드러나지 않는 유행의 작용으로 아직 생생(生生)의 경향은 없다. 그러나 건도의 변화는 생성이 시작되는 최초의 움직임으로 품물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드러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변화가 발생하며, 그 변화 속에서 성명이 생긴다. 이 성명의 개념은 유행의 의미에서는 태극과 다르지 않다.

앞에서 인용한 건괘 「단전」의 “건도변화(乾道變化), 각정성명(各正性命)”의 구절에서 성명의 기원은 건도 변화이고, 성명의 내용은 바름[正]이다. 그리고 건도 변화는 품물, 시간, 공간 세 가지의 화합이기 때문에 성명은 단일한 정신체가 아니다. 또한 성명 중에는 ‘정신적 지각능력(靈智)이 들어 있다. 그런데 품물, 시간, 공간은 태극의 자연스러운 유행변화가 가지는 것이므로, 성명과 정신적 지각능력의 근원은 끝도 시작도 없는 태극 속에 들어가서 그 근원을 따질 수 없는 것이다.⁴²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性)과 명(命)의 관계이다. “물(物)이 받은 바가 성(性)이 되고, 하늘이 부여한 바가 명(命)이 된다.”⁴³는 주자의 주석과 같이 성과 명은 본질적으로 내용상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분별을 하자면 물이 생겨난 이전의 것을 ‘명(命)이라 하고, 물이 생긴 이후의 것을 ‘성(性)이라 하고 하는 것이다.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이 만물에 내려간 것을 말한다.

41 品物: 품물은 乾卦 「象傳」의 ‘品物流形’이란 표현에서 나타난다. 현상계의 物象이란 건과 곤이 공동으로 작용한 후에 생성되는 것인데, 품물은 건이 작용하는 초기에 물상의 전신으로 구체적인 물질이 출현하기 이전에 아직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최초의 물질상태로 정신체이다.

42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187-188쪽 참조.

43 朱子, 乾 「象」 注.

즉 ‘명(命)’이 제1단계이고 ‘성(性)’은 제2단계의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명(命)’은 하늘(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性)’은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천(天)이란 것은 생(生)하기 이전이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생(生)한 후를 말한다. 건괘의 「단전」에서는 성명을 합하여 말하고 있지만 「중용」의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는 명제는 성명(性命)을 둘로 나누어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⁴⁴

한편, 성과 도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학적(易學的) 사유(思惟)에서 도와 성의 관계는, ‘성’의 존재 근거 혹은 성립근거가 ‘도’라는 것이다.⁴⁵ 역학에서 도에서 시작하여 성을 말하며, 성(性)은 천도(天道)·천명(天命)의 내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物)에 내재된 혹은 물이 구(具)·득(得)하고 있는 도가 바로 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와 성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⁴⁶ 따라서 역학에서 말하는 태극(太極)·도(道)·천도(天道)·천명(天命)·성명(性命)은 본질적·내용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3. 『주역』 윤리관의 본질

『주역』은 우주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고 하늘과 인간이 모두 회통(會通)하는 이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법칙화하여,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도덕 실천의 문제를 『주역』의 가장 중요한 대강(大綱)으로 보고 있다.⁴⁷ 그런데 『주역』 윤리관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간의 존재 근거를 『주역』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윤리관이라는 가치의 문제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관점

44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380-381쪽 참조.

45 「繫辭傳」上.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 善也 成之者 性也.”

46 최영진, 「『周易』 『十翼』의 性論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1992), 10쪽.

47 정병석, 「역경 상징체계의 함의」, 『주역의 현대적 조명』(범양출판부, 1992), 238쪽.

에 따라서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본질 내지 존재 근거는 우주의 본원인 태극 혹은 도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으며, 윤리 도덕의 본원과 성립근거에 대해서는 ‘성(性)’과 ‘선(善)’의 역학적 개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사실 『주역』의 우주론적 세계관과 이에 따른 사실과 가치(혹은 당위)를 동시에 포섭하는 역학적 사유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주역』의 윤리관은 인간의 본성[性] 그 자체가 도덕의 성립근거이다. 따라서 인간 본성에 대한 자각은 도덕적 자각이며 그 발현이 바로 도덕의 발현이다. 이는 인간의 본질을 도덕성이라고 본다면 인간이 인간다운 본질은 도덕성의 자각에 있는 것이다.

1) 인간의 본성

윤리 도덕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고찰해야 할 것은 『주역』의 인간관이다. 인간의 본질 내지 존재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도덕의 근거 및 원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주역』에서 인간은 우주가 가지는 위대한 도(道)의 유행(流行) 속에서 그 이치를 파악하여 그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각적 능력, 즉 자기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자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주역』에서 인간은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변동불거(變動不屈)하여, 스스로의 이념을 실현하고, 다른 만물존재의 완성을 도와주는 특수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⁴⁹ 그리하여 『주역』에서는 인간이란 객관적인 세계의 법칙을 미리 알고 자각하여, 그것에 대처하려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48 최영진(1989b), 앞의 논문, 29쪽.

49 정병석(1992), 앞의 논문, 236-239쪽 참조.

인간의 본질 내지 존재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건괘 「단전」의 “건도가 변화해서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한다.”⁵¹와 「계사전」의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 이것을 일러 ‘도(道)’라 한다. 이 도를 계승하는 것이 ‘선(善)’이요, 이 도를 내재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성(性)’이다.”⁵²의 문장을 통해서 검토해 보자. 인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인성론(人性論)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본성은 건도 변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우주 만물은 건과 곤의 관계 속에서 창조된다. 건도(乾道)의 작용으로 성명(性命)이 생기고, 곤도(坤道)의 작용은 건도의 작용을 계승하여 창조된 성명을 함양하고 형체를 더하여 만물이 비로소 나타난다. 건과 곤의 작용은 사물이 성(性)과 형(形)으로 이루어지고, 우주 만물은 건도에 근거해서 생명이 시작됨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가 건괘 「단전」의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주 만물은 건도의 작용으로써, 건도가 만물에 내재하여 그 본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은 건도가 인간에 내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세계의 본원인 도가 인간에 내재하여 그 본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실재의 우주를 통하여 나타난 것들은 모두 도에 의해서 진실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各正性命]. 또한 이 도가 하나의 개체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성이다.⁵³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에 대한 『주역』의 우주론적 입장이다. 또한 “일음일양지위도, 계지자선야, 성지자성야.”라는 명제에서도 도가 인간에게 내재적으로 간직된 것이 성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인간에게 내재된 도인 것이다.

50 오석중, 『『周易』의 倫理 教育的 意味 論意에 대한 一考察』, 『주역철학과 문화』 제1권 (2003), 368쪽.

51 乾卦 「象傳」. “乾道變化 各正性命.”

52 「繫辭傳」 上 5장.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53 정병석(1992), 앞의 논문, 237쪽.

“건도변화 각정성명”과 “일음일양지위도, 계지자선야, 성지자성야.”라는 명제는 인간의 본성이란 도가 인간에게 내재된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성(性)과 도(道)의 동일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도덕성의 원리

인간의 존재 근거는 천도(天道)에 있으며, 이 도가 인간에게 내재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本性)이다. 「계사전」의 “일음일양지위도, 계지자선야, 성지자성야.”라는 구절이 그 대표적 예문이다. 다시 말하면 ‘일음일양’으로 정의되는 세계의 운행질서인 도(道)가 물(物)에 내재하여 이루어진 것이 성(性)이고, 이와 같은 세계의 운행질서를 따라 행위하는 것이 선(善)이다. 따라서 선이라는 가치의 성립은 도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근거하는 것이다.

『주역』은 성론(性論)의 우주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부터 당위의 규범이 도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본성(本性)은 모든 도덕적 행위와 윤리 법칙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가치의 본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구절은 천도(天道)의 운행질서가 곧 인간질서라는 것으로, 역(易)을 비롯한 중국철학의 기본 관점으로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를 일원적⁵⁴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道)’는 세계의 존재 원리인 동시에 당위 규범의 본원이 되는 것이다.

성(性)이 당위의 원리인 도(道)의 내재적 근거로 제시된다고 할 때에 성의 절대 가치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의 궁극적 근거는, 비록 성을 매개로 하고 있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 즉 도에 그 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다.⁵⁵ 그런데 여기서 ‘선(善)’이라는

54 ‘一陰一陽’의 변화원리는 존재와 당위,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의 일치라는 역학 사상의 기본입장이기도 하다. ‘一陰一陽’의 원리를 본받아 법으로 삼고 따라 행하는 것이 도덕상의 善이다.

55 최영진(1989b), 앞의 논문, 23쪽.

가치는 인간의 선험적 가치의식 혹은 도덕의식을 매개로 하여 체득함으로써 정립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우주나 자연의 운행원리인 도를 체득할 수 있고, 체득의 방식에 따라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에 전우주적인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선이며, 이 선은 『주역』의 윤리학적 기준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며 최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⁵⁶

“인자(仁者)는 도(道)를 보고 인(仁)이라 이르고, 지자(知者)는 도를 보고 지(知)라 이르고, 백성들은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가 드문 것이다.”⁵⁷는 구절에서 인자(仁者)의 인(仁)이라고 하는 ‘도덕의식’에 의하여, 지자(知者)의 지(知)라는 ‘가치의식’에 의하여 인(仁)과 지(知)라는 각각 하나의 가치로 규정된다. 주체의 개별적 가치의식에 의하여 무규정적(無規定的), 초가치적(超價值的) 전일자(全一者)인 도(道)가 어느 하나의 가치로 규정되는데, 이 주체의 가치의식을 일반화 시킨다면 가치일반인 지선(至善)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⁵⁸ 따라서 당위 규범인 도덕은 도를 인간의 선험적 도덕의식을 매개로 하여 체득함으로써 정립되는 것이며, 이 도덕의식에 의하여 존재가 당위로, 사실이 가치로 전환되는 것이다. 즉 도가 인간에게로 계승되고 내재화될 때 도덕 세계가 발단한다.

도덕이 비록 성을 매개로 하지만 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에 대해서 ‘일음일양’ 즉 ‘음양(陰陽)’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一)’로서의 도의 자연유행이나 ‘다(多)’의 입장에서 말하는 변화생성이나 하나같이 도의 불변적 본성이지만, 다만 변화생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56 김연재, 「乾坤의合一로부터 본 『역전』의 審美的 人間學: 善과 美의 일치와 윤리적 교화」, 『유교사상연구』 제28집(2007), 164쪽.

57 「繫辭傳」上 5장.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仁者見之謂知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鮮矣.”

58 최영진(1989b), 앞의 논문, 27-29쪽.

말하려면 반드시 ‘음양’⁵⁹을 언급해야 한다.⁶⁰ ‘계지자선(繼之者善)’이란 변화 생성의 작용을 찬양한 것이고, ‘성지자선(成之者性)’이란 음양이 만물의 성분 중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다.⁶¹ 이로부터 음양의 구분은 변화가 일어나고 생생(生生)의 작용⁶²이 나타나는 것이다.⁶³

역학적(易學的) 사고에 있어서 변화란 단순한 변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이라는 창조성을 그 본질로 하는데 ‘음양의 작용이 바로 이와 같다.’⁶⁴ 이 음양화생(陰陽化生)의 도가 계속하여 단절되지 않으면 우주의 모습은 ‘생생불이(生生不已)’의 무한한 생명 창조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고, 인간은 그 우주 생명 중에서 ‘도덕의 창조자’, ‘도덕의 주체자’, ‘도덕의

59 道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흐름의 운동으로 道의 流行은 圓道이다. 도는 인간의 눈을 통하여 보면 자연은 진퇴도 있고, 가고 돌아오미가 있기 때문에 음양의 뜻은 여기에서 성립된다.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47쪽.

60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위의 책, 46쪽.

61 性의 존재 근거는 道이고, 善도 道에서 출발하는데 道는 陰陽化生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善은 음양화생의 작용을 형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善의 의미와 ‘生生’의 뜻이 밀접하게 상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도의 변화에는 ‘바른 성명’은 있으나 ‘부정한 성명’은 없기 때문에 性 역시 善性만 있고 不善한 性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善性은 절대적이지만, 현실의 작용에 떨어지면 善과 惡 혹은 善과 不善의 상대가 생기는 것이다. ‘乾道變化 各正性命’에서 이른바 ‘성명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건도 변화를 통하여 발생한 성명이고, 변화의 바름(正)을 얻은 것이고, 또한 性의 바름을 얻은 것이다. 건도의 변화 속에서 품물, 시간, 공간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화합하여 하나의 막힘도 없는 것이 ‘바름’이다. 이 ‘바름’이라는 말로부터 실은 ‘善’이란 뜻이 나오는 것이다.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위의 책, 198-202쪽 참조. 正의 의미는 그대로 善과 연계되는 것이다. 正字가 『大學』의 ‘지극한 선에서 그침(止於至善)’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최영진(1989a), 앞의 논문, 94쪽.

62 음양, 생생, 변화는 실질적인 뜻으로는 다 같은 것이다. 구분하여 말하면 ‘음양’은 변화생성(化生)이란 특성을 말하고, ‘生生’은 만물이 형태를 드러내는 기능을 말하며, ‘변화’는 만물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道는 우주만물의 변화와 생성을 말하는 것으로 ‘一’에서 내려와 음과 양의 두 가지 성질로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留意해야 할 것은 철학적 단계상의 구분은 있지만 道의 변화생성과 자연유행은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로 피차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위의 책, 47-48쪽.

63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47쪽.

64 최영진(1989a), 앞의 논문, 24쪽.

실천자'의 신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繼之者善].⁶⁵

이와 같이 『주역』에서는 도덕 행위의 근원을 우주의 생명성의 원리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 즉 부단히 생명을 길러내는 우주의 원리가 그 우주의 일부인 인간에게 도덕적 생명의 원리로 내재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성의 원리인 도(道)가 인간에게 체득된(得→德) 것이 글자 그대로 도덕(道德)인 것이다. 이 도덕의 발현은 우주라는 전체 세계가 생명을 지속하는 혹은 전체 세계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다.⁶⁶ 그리하여 『주역』의 윤리관 속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언제나 대자연의 전체 생명과 함께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다.⁶⁷

이상에서 『주역』의 윤리관을 첫 번째는 '도(道)'를 중심으로, 즉 도를 인간이 선협적 도덕의식을 매개로 하여 체득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을 탐색했고, 두 번째는 '음양'을 중심으로, 즉 우주의 생명 생성의 원리가 인간에게 체득된 것이 도덕이라는 것을 고찰했다.

태극이 움직여 인간의 도덕성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도에서 기(器)로 화생(化生)하는 과정의 극치이며, 인간이 인간다운 본질은 바로 도덕성의 자각에 있는 것이다.⁶⁸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도덕성의 발현인 것이다. 그런데 역학적 입장에서 도(道)와 덕(德)의 관계를 살펴보면, 만물이 말미암는 곳은 도이고, 도에서 얻는 것이 덕이다. 도와 덕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이란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품수 받은 정신을 말하고, 사람은 모두 도로부터 생겨나고, 사람은 모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⁶⁹ 이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65 정병석(1992), 앞의 논문, 243쪽.

66 오석중(2003), 앞의 논문, 388쪽.

67 광신환, 『주역의 이해』(서광사, 2010), 15쪽.

68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375쪽.

69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위의 책, 377쪽.

즉 인간의 참모습은 도덕의식을 매개로 도(道)를 체득하여 도덕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도덕성을 자각하고 발양하여 ‘도덕적 존재’가 되고, 다시 도덕적인 인간을 단계별로 나누는 것은 인간이 내재적인 본성을 자각한 후에 우주의 본원인 도(道)에 돌아가려는 노력이다. 이른바 ‘인생의 의의’라는 것 역시 이런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⁷⁰ 이처럼 『주역』의 윤리관은 우주의 질서인 도(道)가 인간 내면의 세계로 고양되어 도덕성에 대한 근거와 원리로 자리 잡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IV. 풍수 윤리관의 역학적 해석

1. 풍수와 『주역』의 관계

풍수 윤리관과 『주역』 윤리관의 연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풍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을 고찰하기 앞서 풍수와 『주역』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주역』은 괘효상과 괘효사의 상관적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입장에 따라 상수역(象數易)과 의리역(義理易)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상수역은 상수적 사유방식과 더불어 인사(人事)와 천리(天理)에 부합되는 입장에서 풍수지리, 자미두수, 기문둔갑, 매화역수, 단역육효 등의 응용역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풍수와 관련하여 『주역』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이는 풍수와 『주역』은 실제적으로 원(源)과 유(流)의 관계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70 고회민 저, 정병석 역(2004), 앞의 책, 388쪽.

아주 오랜 옛날에는 동굴인 움집에서 살고 들에서 거처하였는데, 후세에 성인이 궁실로 바꾸어 위에는 들보를 얹고 아래에는 서까래를 얹어 바람과 비를 대비하였는데, 모두 대장괘(大壯卦)에서 취한 것이다. 옛날에 장례(葬禮)를 지낼 때는 쇠를 두껍게 입혀서 들 가운데 봉분을 하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으며, 상기(喪期)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후세에 성인이 관곽으로 바꾸었으니, 모두 대과괘(大過卦)에서 취하였다.⁷¹

“역(易)은 천지(天地)와 똑같다. 그러므로 능히 하늘과 땅의 도(道)를 얻어 짜놓을 수 있다. 우러러 천문(天文)을 살피고, 구부러 지리(地理)를 살피니, 유명(幽明)의 연유를 알며, 시작을 근원으로 하여 종말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생사의 이치를 알며, 청기(精氣)가 모여 사물이 되고, 혼(魂)이 돌아다녀 변(變)이 된다. 그러므로 귀신의 동정을 알 수 있다.”⁷²

풍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풍수는 길함을 따르고 흉함을 피하려는 인간의 현실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했던 무술(巫術)에서 유래되어 음양오행과 결합하고 『주역』 철학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학술체계의 깊이와 넓이를 심화, 확장, 발전시켜 왔다. 이는 풍수가 특정 시대의 특정인에 의하여 발생한 학문이 아니고 일종의 정제(精製) 과정을 거친 역사성(歷史性)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풍수가 중국 전통철학에서 인간의 삶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인간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극복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주역』을 자연스럽게 수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71 『繫辭傳』下. “上古 穴居而野處 後世聖人 易之以宮室 上棟河宇 以待風雨 蓋取諸大壯 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期無數 後世聖人 易之以棺槨 蓋取諸大過.”

72 『繫辭傳』上. “易與天地準 故能彌綸天地之道 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知死生之說 精氣爲物 遊魂爲變 是故知鬼神之情狀.”

풍수이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언제나 역학의 발전사와 맞물렸다. 풍수와 고대의 전반적인 문화 사상사 특히 그 기둥이 된 역학(易學)과의 관계를 주목하면, 풍수는 한 측면으로 중국문화, 특히 역학의 발전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⁷³ 또한 풍수설을 보면 용(龍)·혈(穴)·사(砂)·수(水) 등의 풍수 전문용어가 등장하며, 동시에 도(道)·리(理)·기(氣)·음양(陰陽)·오행(五行)·팔괘(八卦) 등 역학과 관련된 전문용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풍수의 바탕이 되는 풍수 이론이 『주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⁴ 다시 말해 풍수는 『주역』의 큰 틀 아래서 이론적 사유체계를 갖추었고 『주역』을 응용해서 이론적 원리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풍수이론에서 철학적인 부분, 다시 말해 동기감응론, 형국론, 윤리관은 역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역학 개념인 태극에서 볼 때 태극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동기감응론이, 태극의 가치론적 측면에서 풍수의 윤리관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응을 규범화하는 측면이 윤리이므로 동기감응론과 윤리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응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적선과 적덕을 행할 때, 즉 도덕적 삶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형국론(形局論)에서 ‘어떤 사물의 형상에서 다른 사물의 형상을 추측하여 알고 이를 개별적 사물에서 유비하는 것’은 상수역(象數易)의 기초적 사유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경험과학적인 부분은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천문학적 원리를 응용하고 음양오행, 팔괘, 64괘 등의 역리(易理)적 방식을 수용하여 풍수학술체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73 하효훈 저, 태극풍수지리연구회 역, 『중국 풍수사』(논형, 2014), 11-12쪽.

74 신영대, 『『주역』의 응용역학 연구: 象數易의 術數文化現象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222쪽.

풍수의 학술적 이론체계⁷⁵는 역학(易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2. 풍수 윤리관의 역학적 기반

풍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풍수는 무술(巫術)에서 유래되어 한대(漢代)에 접어들어 풍수이론이 일정한 추형(雛形)을 갖추었다.⁷⁶ 이는 풍수가 시대적으로 앞서 있는 『역경』, 『역전』, 역학 등 『주역』 계열의 철학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풍수와 『주역』의 관계에 대해서 ‘풍수는 『주역』의 큰 틀 아래서 이론적 사유체계를 갖추었고 『주역』을 응용해서 이론적 원리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논술했듯이 특히 풍수 이론체계의 철학적 부분은 『주역』의 사유체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풍수 윤리관 역시 『주역』의 윤리관과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주역』의 윤리관과 풍수의 윤리관의 연관성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풍수 윤리관은 풍수의 독창적인 윤리관이라기보다는 시대적으로나

75 풍수의 이론체계에는 많은 異論이 있으나 최창조의 이론체계에 따르면 다음 표와 같다.

風水	氣感應的 認識體系	同氣感應論
		所主吉凶論
		形局論
	經驗科學的 論理體系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76 한나라 시대에 最古의 풍수 경전인 『靑烏經』이 출현했는데, 이는 풍수가 무술에서 유래되어 천문학, 음양오행, 주역 등을 수용하여 독립적인 학술로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술적 감성에서 이성적 탐구로의 발전이 풍수에서 이루어지면서 학술체계를 정립하는데 풍수 호칭의 변화에서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풍수의 호칭은 卜宅, 相宅, 堪輿, 風水의 순으로 변천되는데 이는 풍수이론 및 그 지위 발전과 변화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학문적으로 앞서 있는 『주역』의 윤리관을 자연스럽게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우리는 앞서 풍수 윤리관의 철학적 본질이 선과 덕임을 고찰하였다. 덕은 '생(生)하게 하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길러주면서도 주재하지 않는' 정신이다. 또한 선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시비곡직을 판단하는데 최종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상황에 맞는 최적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덕은 도에서 나오며 선은 도를 계승하는 것이다. 따라서 풍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은 '도(道)'가 되는 것이다.

앞서 태극(太極)과 도(道)의 관계에 대해서 '태극의 유행을 말하여 도라 부르고, 도의 지극함을 말하여 태극이라 한다. 태극은 철학계의 근원이라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으로 생생변화의 근본이고, 도는 유행작용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본질적 태극과 도는 다를 바가 없다.'고 논술한 바 있다. 또한 태극은 존재와 가치의 두 영역을 동시에 포섭하는 역학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도는 모든 존재와 가치의 최종적 근거로서 『주역』 철학의 정신이고, 『주역』의 본령으로서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주역』의 윤리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도를 중심으로, 즉 도를 인간의 선협적 도덕의식을 매개로 하여 체득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것을 탐색하였고, 두 번째는 도의 원리인 '일음일양'을 중심으로 즉 우주의 생명 생성의 원리가 인간에게 체득된 것이 도덕이라는 것을 고찰하였다. '건도변화(乾道變化), 각정성명(各正性命)'이라는 명제에서 우주 만물은 건도에 의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만물은 각각 자신의 성명을 바르게 성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물 중의 하나인 인간의 본성(性)은 건도가 인간에게 내재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주역』의 윤리관은 전술하였듯이 인간의 본성(性) 그 자체가 도덕의 성립근거가 되는 것이다.

‘성(性)’의 존재 근거 혹은 성립근거와 도덕적 당위의 근거에 대한 진술은 다음의 『주역』 「계사전」 구절에 명시되어 있다.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 하고, 그 도를 따르는 것을 선이라 하고 그 도를 이루는 것을 성이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도가 인간에게 계승될 때 선으로 전환되어 도덕의식으로 규범화되며 당위의 도덕률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인간이 본유(本有)한 도덕의식을 매개로 천도(天道)가 인도(人道)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음일양’이라는 자연의 변화법칙에서 성을 규정하고, 윤리 도덕은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도덕률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본성(性)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주역』 윤리관은 자연계와 인간계를 구조적으로 일치시키는 사유방식구조, ‘역도(易道)’라고 표현하는 『주역』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인간은 처음에 우주 만물의 이치를 본받음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우주 만물은 인간의 도덕적 자아를 수립하는 데 의거한 자료에 불과하고 도리어 그 객관적 우주를 도덕의식을 통하여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주역』은 윤리관을 정립시켰다.⁷⁷

우리는 지금까지 앞서 고찰한 풍수 윤리관과 『주역』 윤리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풍수의 윤리관의 본질은 선과 덕이며 그 철학적 기반은 도이고, 또한 『주역』 윤리관의 출발점도 도이다. 따라서 풍수 윤리관과 『주역』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풍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이 『주역』이라는 것이다. 즉 풍수 윤리관은 역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풍수 윤리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선을 쌓고 덕을 쌓아 명당을 얻어 복을 얻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77 정병석(1992), 앞의 논문, 238쪽.

잘못된 인식이다. 풍수 윤리관은 '도덕적 인격의 실천'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복'이라는 것은 도덕적 인격의 실천 혹은 인륜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실천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발복만이 풍수 윤리관의 존재 이유가 아니며, 또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풍수와 풍수 윤리관의 지향점은 분명 '인간 삶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역』의 윤리가 풍수 이론에 목적 지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풍수가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앞서 고찰한 풍수 고전에서 풍수 윤리가 '인륜(人倫)과 인도(人道)임을 천명하면서 심지어 풍수이론(경험과학적 이론체계)에 지나치게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풍수 윤리관의 본질과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윤리관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풍수의 윤리관과 『주역』의 윤리관은 궁극적으로 윤리도덕을 실천하여 인간의 참모습을 추구하고 인격의 수양에 이르는 것이다. 다만 『주역』의 윤리관은 윤리도덕의 본질적 측면을, 풍수의 윤리관은 윤리도덕의 실천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결국 인간 삶의 고양을 위한 당위의 윤리 도덕은 도를 따르는 것 이외의 것이 될 수 없음을 풍수 윤리관과 『주역』의 윤리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풍수 이론체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풍수 윤리관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전 논의 과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풍수

이론체계에서 독립된 한 분야로 풍수 윤리관은 그 나름의 고유한 윤리관을 갖고 있다. 또한 그것은 풍수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에 기여 하는 가치를 함축한 풍수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풍수의 폐해를 탓하지만 그들이 참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은 폐해를 초래하는 사람의 ‘윤리 도덕’인 것이다. 풍수의 윤리관은 인간의 욕심과 거짓을 용서하지 않으며, 천도(天道)와 인륜(人倫)에 부합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풍수 윤리관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도덕 수양이나 윤리적 교화를 자연스럽게 수반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풍수 윤리관을 심층 분석해 보면, 풍수이론의 한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또한 노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풍수 윤리관은 이와 같은 풍수이론의 한계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한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풍수 윤리관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역학에서 “건도변화, 각정성명”, “일음일양지위도, 계지자선야, 성지자성야.”라는 명제에서 인간의 존재 근거는 천도(天道)에 있으며, 인간의 본성(本性)이란 천도가 인간에게 내재된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성(性)과 천도(天道)의 동일성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일음일양’으로 정의되는 세계의 운행 질서, 즉 도를 따라 행위 하는 것이 선이다. 따라서 선이라는 가치의 성립은 도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학은 성론(性論)의 우주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부터 당위의 규범이 도출되어 나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본성은 모든 도덕적 행위와 윤리 법칙이 그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가치의 본원이 되는 것이다.

한편 선(善)의 근거인 도(道)를 ‘음양’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역학적 사고에서 ‘음양’의 작용이란 생성이라는 창조성을 그 본질로 한다. 이 음양화생(陰陽化生)의 도가 계속하여 단절되지 않으면 우주의 모습은 ‘생생불이(生生不已)’의 무한한 생명 창조의 과정을 드러낸다[繼之者善]. 즉 도덕의 근본을 우주의 생명 생성의 원리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 다시 말해 부단히 생명을 길러내는 우주의 원리가 그 우주의 일부인 인간에게 도덕 생명의 원리로 내재된다. 즉 생명성의 원리인 도가 인간에게 체득된 것이 바로 도덕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우주 생명 중에서 ‘도덕의 주체자’의 신분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가치의 궁극적 근거는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 즉 도에 그 기반을 두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도덕(혹은 선)은 인간의 선험적 가치의식 혹은 도덕의식을 매개로 하여 체득함으로써 정립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주 운행의 원리인 도를 체득할 수 있고, 체득의 방식에 따라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에 전 우주적인 가치인 선을 구현한 것이다. 이는 도덕의식에 의하여 존재가 당위로, 사실이 가치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역』이 제시하는 인간의 본성과 윤리 도덕의 원리는 풍수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역』의 윤리 도덕은 풍수 윤리관의 연원이며 그 실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주역』의 윤리관이 풍수 윤리관의 단초를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풍수의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을 『주역』에서 정초하는 것은 풍수 윤리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풍수 이론체계에서 윤리관의 위상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풍수의 학문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老子』, 『大學』, 『中庸』.
『朱熹集』 卷 36, 「答陸子靜」.

2. 단행본

곽신환, 『주역의 이해』. 서광사, 2010.
고회민 저, 정병석 역, 『주역철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2004.
김동규 역저, 『인자수지』(前). 명문당, 2008.
복응천 저, 신평 譯註, 『고전 풍수학 설심부』. 관음출판사, 1997.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박영사, 1990.
윤흥기, 『땅의 마음』. 사이언스북스, 2011.
이홍우, 『성리학의 교육이론』. 교육과학사, 2014.
채성우 원저, 김두규 역해, 『명산론』. 비봉출판사, 2010.
채원정 著, 양금국 点校, 류보동 主編, 『圖注 發微論』. 내몽고인민출판사, 2010.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2006.
_____, 『최창조의 새로운 풍수이론』. 민음사, 2014.
하효훈 저, 태극풍수지리연구회 역, 『중국 풍수사』. 논형, 2014.
胡舜申 著, 金料圭 역주, 『地理新法』. 비봉출판사, 2005.

3. 논문

김연재, 「乾坤의合一로부터 본 『역전』의 審美的 人間學: 善과 美의 일치와 윤리적 교화」. 『유교사상연구』 제28집, 2007, 155-182쪽.
_____, 「한원진의 一原分殊의 역학방법론과 人物性異論의 논법: 太極圖의 해석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5집, 2013, 513-554쪽.
김혜정, 「중국 풍수지리학의 사상적 연원」.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홍근, 「대학 캠퍼스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정해, 「풍수 발복론의 역사적 전개와 한계성 비판」. 『한국사상과 문화』 제84집, 2016, 438-463쪽.

- 신영대, 『『주역』의 응용역학 연구: 象數易의 術數文化現象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오석중, 「『周易』의 倫理 教育的 意味 論意에 대한 一考察」, 『주역철학과 문화』 제1권, 2003, 362-391쪽.
- 박광서, 「유성룡의 선대 음·양택에 관한 풍수지리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林甲娘, 「음택풍수설화연구」, 『한국학논집』 제13집, 1986, 153-176쪽.
- 정병석, 「역경 상징체계의 함의」, 한국주역학회편, 『주역의 현대적 조명』, 범양출판부, 1992, 219-245쪽.
- 최영진,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주역』의 음양대대적 구조와 중정사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a.
- _____, 「『繫辭傳』에 있어서의 善의 성립근거: ‘繼之者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b, 17-29쪽.
- _____, 「『周易』 『十翼』의 性論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 제3호, 1992, 7-16쪽.
- 홍보남, 『한국 풍수설화에 나타난 풍수이론 특징』,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국문초록

풍수계의 현실은 풍수 윤리관이 풍수 이론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풍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윤리관의 철학적 기반(地盤)이 『주역』에 있음을 밝히고, 『주역』의 인간관과 윤리관에 대한 역학적 해석을 토대로 풍수 윤리관을 새롭게 정초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풍수 고전에 나타난 윤리관을 논의의 출발로 삼고, 특히 오늘날 풍수 윤리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주목하여 비판적 검토를 하려 한다. 이것은 풍수 윤리관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기반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풍수 윤리관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기반구축을 위해 풍수의 기둥이 된 역학(易學)과의 관계를 주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풍수는 역학의 큰 틀 아래서 이론적 사유체계를 갖추었고 역학을 응용하여 이론적 원리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태극(太極), 도(道), 건(乾), 곤(坤), 성명(性命) 등의 역학적 개념과 범주를 토대로 역학적 사유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本性)과 윤리도덕(倫理道德)의 근거와 원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역학적 개념과 범주를 통해 인간의 본성(本性)이란 천도(天道)가 인간에 내재된 것이며, 윤리 도덕의 근거는 비록 성(性)을 매개로 하고 있지만,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인 도(道)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철학적 논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다.

투고일 2018. 12. 19.

심사일 2019. 1. 13.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풍수 윤리관(ethics), 철학적 기반(philosophical ground), 역학적 개념(change ological concept), 인간의 본성(human nature), 윤리도덕의 근거(principles of ethics and morals)

Abstracts

A Study of Changeological Ground on Feng Shui Ethics

Park, Il-yong

The reality of Feng Shui is that we are not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status and significance of Feng Shui ethics in Feng Shui theory. This paper tried to show that the philosophical ground of ethics, which is the basis of Feng Shui, is in the I Ching and tried to establish a new ethics of Feng Shui on the basis of the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the human view and the ethics of the Zhouyi(『周易』).

For this purpose, we first take the ethical viewpoint shown in Feng Shui classics as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and especially focus on the false ethics of Feng Shui today and make alternative criticism and review. This also rais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new philosophical ground for the ethics of Feng Shui.

In order to establish a new philosophical ground for ethic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Zhouyi(『周易』) that became the pillar of Feng Shui. Because Feng Shui shows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Zhouyi(『周易』) and Feng Shui applies the Zhouyi(『周易』) muc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From this point of view, we intend to discuss the basis and principles of human nature and principles of ethics and morals expressed in philosophical thought based on philosophical concepts and categories such as Taegeuk(太極), Do(道), Gun(乾), Gon(坤), XingMing(性命)

Through changeological concepts and categories, we tried to review following philosophical issues : Human nature is that Cheondo(the heavenly way) is in human, and although the basis of ethics and morals is mediated by Xing(性) but it lies in the way(道) which is transcendent existence beyond human beings.

This can be understood as opening a new horizon of FengSuI ethics, and as a result, it will enhance the academic status of FengSu.

